

민족지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자

아네트 B. 프롬

민족지 박물관과 무형 문화유산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떼어 놓을 수 없는 두개의 실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들의 시초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맞물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렇게 화려하고 복잡하게 얽힌 직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시점엔가 풀렸다가 이제 다시 서로 맞물려 짜이고 있는 중이다. 박물관 종사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이제 동일하면서도 다르게 맞물려 있는 요소들 중에서 일부로 이루어진 더 질기면서 더욱 전형적인 직물을 어떻게 짜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민족지 박물관과 무형 문화유산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다른 요소들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베틀로 시작하다 - 프롤로그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박물관의 기능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은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수집하는 기관이라고 말한다. 박물관의 목적은 각 특정 기관의 의무/사명으로 결정된 자료를 수집, 보존 그리고 해석하는 것이었다. '수집'이라함은 유형의 자료들을 모은 것을 가리키는 데, 비록 현대 예술에 대한 오늘날의 표현을 고려하자면, 일부는 그렇게 유형의 자료들은 아니다! '보존'은 이런 유형의 자료를 미래 세대들이 보고 깨우치며 즐길 수 있도록 수집 당시의 상태에 가깝도록 유지하는 일반적인 책임을 말한다. '해석'이라함은 박물관의 3대 정의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해되는 것이다. 단순히 식별 정보와 함께 자료를 전시하는 것도 해석의 한 가지 형태이다. 스토리텔링을 더하면 실질적인 정보 제공 라벨, 오디오 가이드, 안내자와 함께 하는 투어, 인쇄물과 그 밖의 것들로 보완을 하면서 자료들을 유기적인 전시물로 한데 모아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관람객들은 전시품들에 대해, 그리고 민족지 박물관의 경우에는 이런 전시품들을 만들고 사용했던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날실을 더하다 - 민족지 박물관: 시초

이와 같은 수집 기관의 방대한 분야 내에서, 민족지 박물관을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인가? 대체, 민족지학이란 무엇인가? 이 용어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고 세계 각지에서 다른, 또는 대체되어 사용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민족지학/민족학은 학문 기준 인류학에 포함되어 있었다.

민족지 박물관의 뿌리는 세계의 확장 역사와 민족주의 발현에 모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16, 17세기의 세계 확장을 통해 유럽은 새롭고 신기한 식물상과 동물상,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화석 및 광물, 그리고 원주민 사회에 눈을 뒀다. 경제적 우월성과 기타 이유들로 지위 확보를 위해 수집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생겨났고 먼 곳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새로운 자료들의 대표적인 예들로 가득한 개인의 진기품 수집실(kunstkammern 쿤스트캄머)들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진기품 수집실은 초기 수집가들이 그 진기품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집착과 개념, 그 속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관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스탠턴 2011). 또 다른 하나로 여겨졌던 새로이 발견된 문화 집단에서 유래한 물품들은 주로 그들의 사회 구조가 아무리 정교할지라도 소위 원시적인 사회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바와 고든(2013)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 수집품들은 “물품들의 보존, 탐구, 전시의 장소”였다. 사실, 많은 개인적 진기품 수집실은 19세기 또는 그 이전에 설립된 유서 깊은 유럽 국립 박물관의 근간을 이루었다.

개인 수집품이자 많은 경우 지위 수집품에서 성장한 민족지 박물관 몇 곳을 보자. 가장 오래된 덴마크 국립 박물관의 민족지 컬렉션은 17, 18세기에 세워진 데니쉬 로얄 쿤스트캄머로 거슬러 간다. 여기에는 비 유럽인들의 민족지학적, 고고학적 유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18세기 초, 러시아의 피터 대제는 많은 개인 수집품들을 한 데 모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첫 국립 박물관인 쿤스트캄머를 지었다. 초기에는 주로 자연사 표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세기 중반, 전 세계 민족들의 자료들로 별도의 민족지 컬렉션이 만들어졌다. 전시품들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배치되었다.

20세기까지 많은 주요 국립 민족지 박물관은 진기품 수집실로 만들어진 모델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심도 깊은 정보로 해석을 제공하는 전시품들이 없었다. 20세기 중반 이전 눈길을 사로잡는 물품들의 대규모 컬렉션들은 일반적으로 물품 제작 국가 그리고/또는 물품의 유형이나 기능 별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질적으로 전시품들은 빼곡하게 나열된 개방된 저장고와 같았다. 지식은 단순히 박물관 큐레이터들에게서 나왔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방대한 민족지 컬렉션들은 왕실의 지원을 받은 과학 탐사에 참여했던 인류학자들, 전리품이나 선물을 들고 돌아온 군대, 선교사, 식민지 관리, 개인적으로 선물과 구매를 통해 수집 활동을 하던 여행가들, 커다란 국제 박람회를 통해서 축적되었던 것들이다. 당시에는 학문적 소양을 갖춘 민족지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이런 박물관 운영을 맡았으며, 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전시회를 개최했다. 모두가 귀중한 물질문화 그룹을 형성했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진과 기록물과 같은 기록 보관 자료들로 풍부해진 주로 비서구 사회에 대한 유형의 기록들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질문화의 원래 맥락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무형 유산도 역시 수집되었음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리우스 바르보(1883-1969)는 캐나다의 선구적인 인류학자이자 민속학자였다. 1911년, 바르보는 국립 박물관 (현 캐나다 역사박물관)에 들어가서, 1949년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하였다. 그의 연구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캐나다 내 원주민들의 사회 조직에 초점을 두었다. 그가 일을 하는 동안, 바르보는 원주민들로부터 토템 폴과 의료인의 장비와 같은 방대한 물품들을 수집했다. 그는 또한 “대중 예술, 전통 교역, 건축, 언어, 조리법, 민담, 전설과 민요들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수 천 페이지 분량의 메모들을 수집했고, 이 중 3,800개 이상이 밀랍 원통에 기록되어 있다.”(바르보).

학문적 관점에서, 그리고 박물관의 관점에서, 타인과 자아이라는 두개의 가닥이 “민족지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와 민족지 박물관 형성에 기여했다. 독일어로 *volkskunde*(민속학)과 *völkerkunde*(민족학)은 이러한 이분된 개념 사이를 오가는, 즉 서로 나란히 놓여 있는 가닥들을 잡아주는 왕복(shuttle)을 가장 잘 표현한다. 민족학(*Völkerkunde*)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및 기타 지역에서의 비 서구 민족들, 즉 타인에 대한 연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범주 내 물품들의 컬렉션은 자주 초기 진기품 수집실의 토대를 이루었다. 이들은 제국주의, 경제, 식민지 확장의 일부로 발견되던 새롭고 이국적인 것을 나타냈다. 전자는 유럽 민족지학,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의 지역의 농촌 사회와 그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민속학(*volkskunde*)은 일반적으로 중앙, 동부, 북부 유럽에서 국가의 정체성, 즉 자아를 개발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민족주의의 각성과 연관된 민속 문화의 여러 다른 측면들을 표현하는 데 적용되었다.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 용어로 대표되는 그룹의 물질문화를 갖고 있는 박물관들은 일반적으로 특징이 있다. 새로운 국가와 이들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동안 역사적, 계보학적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날실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의 컬렉션이 한데 모아지게 되었다. 지구 역사의 보다 큰 틀 속에서 인간 발달의 측면들은 이러한 유형 문화의 요소들로 설명되기 때문에 후자는 본래 자연사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전자는 보통 지방이나 국가의 민속 박물관에서 발견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실이 민족지학적, 유럽 민족학 컬렉션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이면의 수집 철학을 한 데 묶어주고 있다. 수집가 겸 학자들은 이러한 자료들이 유래한 그룹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언급된 20세기 초의 캐나다 박물관 인류학자인 마리우스 바르보가 처음으로 취한 접근법은 “빠르게 사라지는 전통 원주민 문화로 여겨지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었다(바르보).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 삶의 방식의 유무형 유산을 모두 수집함으로써 기록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수집 노력은 구조 민족학(*salvage ethnography*)의 형태를 취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원주민과 농촌 주민들의 대대적인 동화, 훼손, 제거로 말미암아 방대한 양의 전통지식이 은폐되거나 분실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민족지 박물관의 무형

유산에 관한 논의에 중요하며, 아래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국제 박람회

민족지 박물관의 형성에 기여한 또 하나의 세계적인 움직임은 국제 박람회, 즉 소위 세계의 박람회들로, 주로 서구 사회의 확장뿐만 아니라 산업 개발에서 발전적인 면들을 전시하였다. 19세기에 개최된 대규모 박람회에 앞서서 18세기 말에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 제조업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1818년과 1851년 사이, “산업 발전을 홍보하기 위해 바바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러시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에서 국가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스위프트 2006). 그러나 1851년 런던 대박람회, 즉 만국 산업 대박람회가 이와 같은 대규모 전시 행사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약 14,000 전시회 참가자들의 100,000 이상의 전시품들이 크리스탈 궁전에 소장되었다. 이것들은 6개월 이상 전시되었고 미술을 포함하여 4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스위프트에 따르면, 런던 박람회의 목표들 중 하나는 “인간 경험의 전체를 요약, 분류,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산업 전시회 동안 교육하고자 한 잘못 판단한 시도들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살아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인류학자들의 참여였다. 실제로, “떠돌아다니는 쇼맨(showmen)에 의한 이색적인 비서구 민족들의 전시는 최소한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19세기 후반 경에는 유럽 전역에서 보편적인 것이었다” (스위프트 2016). 1878년 파리 대학 박람회에서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세네갈, 톤킨, 타히티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을 특징으로 하였다. 인류박물관(musée de l'homme)의 전시인 트로카데로 민족지 박물관(Musée d'Ethnographie du Trocadéro)은 1878년 엑스포의 폐회에서 트로카데로 궁 안에 자리 잡았다. 약 10여 년이 지나고 난 후, 1889년 트로카데로 궁에서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민족지학적인 전시들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콜롬비아 이전의 예술 작품들 뿐만 아니라 그곳의 민족들과 그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라이브 전시회도 포함되었다. 자바의 마을들이 다시 만들어졌고, 카이로 도로가 재건되었으며, 인도의 시장 거리가 재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된 외국의 이색적인 민족들은 상업화된 이국화로 이르렀다. “네이티브 빌리지(Native villages)”는 “상업적 선정주의, 유사 과학적 인류학, 제국의 파워를 강조했기 때문에 관객들을 끌어 모았다” (스위프트 2016).

미국에서는 시카고의 1893년 세계 콜롬비아 박람회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또는 도착 400주년을 기념했다. 이후 첫 번째 피바디 박물관장으로 임명된 프레데릭 퍼트넘은 시카고 박람회의 인류학 섹션을 담당했다. 퍼트넘은 엑스포에서 전시물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족지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프란스 보아스를 데려왔다. 시카고 박람회는 별도의 오락 구역을 갖춘 최초의 만국 박람회였다.

나머지 전시 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끄럽고 어수선한 오락거리들은 미드웨이 플레잔스에 집중시켰다. 미드웨이 구역에는 이국적인 춤이 미국에 소개되었던 첫 번째 장소 중 하나인 카이로의 거리가 다시 재현되었다. 보아스는 에스키모와 다른 미국 원주민 민족들의 예술품 전시를 기획했다. 라이델에 따르면, "(시카고) 미드웨이는 방문객들에게 비 백인의 세계를 야만적이고 유치한 것으로 보는 미국인의 시각에 대한 민족학적, 과학적 제재를 제공하고 유토피아 건설을 위한 인종적 청사진의 과학적 토대를 제공했다" (라이델 40).

일반적으로,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전시하는 것은 박람회에서 전시된 산업적 발전들을 보여준 우월한 유럽인들과 대조해서 인종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식민주의적 야심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콜에 따르면(연대 미상, 12), "미드웨이는 '교육적' [...] 그리고 오락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박람회 관람객들은 먼 이국의 신기한 인종들의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씨실로 채우다 - 무형 문화유산

2003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무형 문화유산 보호협약을 다룬 글이 많이 있다. 무형 문화유산(ICH)의 여러 다른 측면들에 직접적인 초점이 맞춰졌고, 협약에서 명시된 대로 목표는 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존중심을 키우며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협약이 채택된 이후, 유산의 실제 본질 그 자체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학제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회, 정치, 경제 이슈들 또한 다루어졌다(벤딕스 2009; BKG 2004; 니코세빅 2010). 논의 주제는 "문화유산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2009, 255)라는 벤딕스의 대담한 주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하다. 벤딕스는 "민족지학적 지식 산물" 즉, 유산은 보는 사람, 분석가, 민족지학자/인류학자의 구성물이라고 결론을 내린다(앞서 언급한 책, 255). 니코세빅은 무형 문화는 박물관에서 정적인 유물에 통찰력과 무형의 의미를 더해주는 맥락화의 수단이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벤딕스와 마찬가지로 니코세빅은 박물관의 유산은 종종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박물관 종사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음을 인정한다(니코세빅 2012, 58). 필자도 이와 같은 이론적인 논쟁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족지 박물관의 무형 유산이 앞서 간략하게 설명했던 역사, 즉 21세기 민족지 박물관의 형성을 이끌었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민족지 박물관 내 무형 유산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협약과 기타 법률적, 윤리적 행동들은 박물관 형성자들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런 박물관들 속에 함께 얽혀 있는 패턴에 영향을 주었다.

처음에는 진기품 수집실에 소장되었고 이후 초기 대형 박물관들에 위치하게 된 초기 컬렉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산업 박람회의 여러 가지 혼합된 메시지로

점철된 길을 따라가면서, 20세기에는 여러 공공 민족지 컬렉션들이 만들어졌다. 타인이 비서구 사회에서 왔든 이웃한 농촌 공동체의 타인이든 상관없이 다른 민족들의 자료, 유형의 증거가 박물관 속으로 들어왔다. 이처럼 느슨하게 짜진 개략의 21세기 민족지 박물관에 미치는 영향들 중에서 빠진 한 가지 주요한 실은 무형의 것들이다. 사실, 수집 과정의 일부로서, 무형 자료의 기록들도 수집되었다. 인류학 조사의 본질적 요소인 현장 컬렉션은 중요한 배경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의 원래 맥락에서 더 이상 말없는 유물들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스탠턴(2011)이 지적한 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장 컬렉션은 인류학적 현장 작업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박물관 컬렉션은 훌륭한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무형의 지식과 공연은 모두 그보다 이전에는 아닐지라도 20세기 내내 사진, 영상, 음향 기록의 형태로 보관되어졌다. 보충 데이터는 컬렉션을 기록하고 전시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이야기들을 창작하는 큐레이터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1877년에 설립된 피바디 박물관에 대한 글에서, 왓슨은 “19세기 동안 박물관은 지식이 창출되고 관심 있는 대중에게 제공되었던 장소였다”라고 말한다(왓슨 2001). 하지만 왓슨은 누가 그러한 지식을 해석하고 제공하는데 책임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20세기 후반까지 민족지 박물관 내 컬렉션들과 연관된 지식 기반은 직물을 짜는 사람들, 즉 큐레이터에 의해 만들어졌다. 참여자 관찰과 같은 인류학적 관행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문화에 관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문화 상대주의는 다행히도 그들에게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평등한 마음을 제공했다. 박물관 인류학자들은 물질문화와 무형 문화유산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제시되는 것은 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확고한 과학과 예술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의 견고한 역사로 인해, 박물관은 박물관 직원은 그 안에 있는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대중의 신뢰와 권위에 대한 착각을 동반한다. 2003년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 이후, 미국의 원주민 묘지 프로그램 및 본국송환법(1990)과 같은 이전의 법률과 기타 본국송환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박물관 내 해석 전략들이 새로이 방향 설정을 하게 되었다. 이는 “관련된 공동체들과 긴밀하고 협력적인 노력”을 수반한다(쿠린, 2004,7). 때때로 변화는 마지못해 이루어졌다. 다른 경우에는 변화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따라서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문화 전수자를 전문가로 인식하는 유산 관리에 참여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훌륭한 박물관 민족지학자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공동체의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노력을 하면서 항상 전문가/문화 중재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박물관 관행에 완전히 흡수된 전문 용어를 가장 좋은 형태로 사용하면, 이런 참여적인 박물관은 또한 포용적인 박물관이기도 하다. 점차 증가하는 원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는 새로운 노력

들이 생겨남과 더불어 박물관 내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도록 한다. 큐레이터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유한 지식과 권위를 신뢰하도록 배우고 있다. 유형 유산과 관련하여, 해석의 본질은 컬렉션의 획득, 관리, 사용 방법과 아울러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스탠턴 2011). 박물관이라는 기관이 스탠턴이 “지속적인 협력”이라고 말한 것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권위로 이전됨에 따라 단 한 세기 동안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앞서 언급된 책).

변폭(邊幅) 바로 잡기 - 보호

보호 개념은 무형 문화유산 협약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실, 사람과 사회와 연관된 컬렉션 제작을 위한 최초의 자극제 중 하나였다. 오늘날 민족지 박물관에 전시된 물품의 제작자와 사용자가 사실 산업 변화 속에서 사라져 간 세계의 일부라면, 이 개념이 19세기 박물관이 하는 일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수집가들과 학자들은 유무형 자료가 유래한 사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일을 했다. 협약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보호”는 이러한 사회들이 파괴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문화적 관행과 전통은 전 세계 그룹과 공동체의 살아 있는 정체성의 일부임이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더욱이 우리는 무형 문화유산의 유동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연약함과 취약함에 대해 읽게 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의 오류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와 더불어 전통 문화가 그것이 존재하는 해당 현대 사회의 수많은 영향들에 끊임없이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쿠린은 “[...] 무형 문화유산은 영원히 지속되는 형태로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다 [...] 만일 한 형태의 무형 문화유산이 살아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의상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마련이다”(2007, 12-13). 소위 보호 행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징지어진다. 프롬(1983)은 이를 “피클링”이라 부른다. “프리징”도 목록, 영상, 문서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용어이다. 니코세빅은 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녀가 말하는 “살아 있는 [...]기원 [...]으로부터의 석화와 소외”로 끝나고 말았는지를 묻는다(2012, 62).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존은 모든 박물관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수집된 물건들의 상태는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먼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 사진과 기록물의 형태로 무형의 보조 자료를 기록하는 것 또한 특정한 기간에 물질문화의 제작과 사용 측면을 보존하는 것이다. 혹자는 무형 문화유산은 그 문화유산이 유래한 가족과 공동체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쿠린에 따르면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박물관들은 (2004,8) 전통의 지속성과 계속되는 문화적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있다(앞의 같은 책). 민족지학 자료들이 죽어 가는 사회로부터 구조 또는 구제 되고 있다는 과거 개념처럼, 보호의 개념도 잘못되었다. 만일 무형 문화유산의 “항목들”이 공동체에서 가치를 담고 있다면, 비록 이들의 형태가 현재 환

경에 대한 반응으로 변하더라도, 이들은 유지되고 보호될 것이다.

결론

따라서 박물관 민족지학자들이 늘 염두에 두고 있던 행동의 본질적인 측면인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민족지 박물관의 진화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 요소들이 한데 얽혀서 이것을 완전하고, 풍부하며 유의미한 직물로 만들어 준다. 그 반대로 보일 수도 있지만, 민족지 박물관의 주된 초점은 물건이 아니다. 그 물건을 제작한 민족들의 문화 또한 박물관의 신성한 벽면에 수집되고, 해석되어 보존된다. 초기 민족지 컬렉션을 보완하고 진행 중인 컬렉션에 계속해서 수반되는 기록화 작업은 원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관련성을 강화시켜준다. 아마도 보일란은 “무형 유산은 그 정의상 물체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 지향적이다. 그 중심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유네스코 협약, 2003)의 이행은 박물관과 관람객,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바꾸게 될 것이다”(보일란 2006)라고 서술할 때 민족지 박물관과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이런 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잊혀졌던” 문화 지식을 소생시키며, 더 중요한 것은 오래전에 빼앗겼던 컬렉션들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다른 지식들을 계속 보존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부 원주민 사회에서, 역사적 유물과 사진을 갖고 작업하는 것은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지식 보급을 통해 구성원들의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 된다” (피어스 & 브라운 2003, 6).

이제 우리는 이 논의의 핵심에서 민족지 박물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된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들과 무형 문화유산의 관계는 무엇인가? 박물관이 하는 일은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특히 물건들이 제작, 사용되거나 다듬어졌던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그런 물건들과의 관계에서 살아 있는 전통을 기록하는 것이 박물관의 책임은 아니라고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쿠린(2007)은 “협약 실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관은 박물관일 것이다[...] 콘텐츠 측면에서, 박물관은 대부분의 경우 협약에 포함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박물관은 그것의 정의상 문화적인, 보존 기관이다”라고 기술한다. 스탠턴(2011)은 쿠린이 내린 결론에서 더 나아간다. “박물관은 단순히 물건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들은 그러한 물건을 생산한 문화에 관한 것이다 [...] 기록을 하는 것은 연구, 교육, 그리고 해당 물건들이 유래한 원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속에서 지속적인 관련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화는 민족지학 기반의 박물관들에게는 중요한 성과이다.” 사실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무형 유산은 그 안에서 유형 유산의 형태와 그 중요성이 만들어지는 보다 넓은 틀로 봐야한다” (부쉐나키 2004).

오늘날의 민족지 박물관들은 스스로를 살아 있는 참여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박물관들은 가깝고 먼 사회들의 관습과 문화, 기술, 가치들에 대해 말해주는 풍부한 유형의 자료들을 계속 소장하고 있다. 즉, 이들은 공동체의 풍부한 살아있는 문화를 이어준다. 무형 문화유산 또한 유형 유산과 늘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유형 유산을 풍요롭게 해준다. 게다가 이러한 풍성한 물질문화가 유래한 공동체 구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의도로, 몇 가지 목표가 달성되었다. 권위의 목소리도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큐레이터/학자로부터 유형 유산이 유래된 환경의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권위의 이전은 종종 학습된 대화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여기에서 공동체와 서구적 관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주로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 당사자 세대가 만들어졌다. 과거에 박물관과는 상관이 없었던 공동체 구성원들은 직물이 제작되는 전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또 이것을 현재와 미래에 연결 지어주는 박물관과 관련이 있게 된다. 구전 전통과 표현, 행위 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행사들과 같은 무형의 표현들을 한데 통합함으로써, 이전에는 소외되었던 관객들이 다시 박물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